

# 기술개발,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토록 갈망하던 21C가 우리 눈앞에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21C는 기대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무수히 많은 문제도 안고 있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개척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전의 변화 속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를 거듭해가는 현재를 미루어 미래를 내다볼 때, 21C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설지는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세계는 첨단과학과 신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좁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설기술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21C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안타깝게도 기술개발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에 치중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업이나 기술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진들은 비체계적이며 즉흥적인 연구 Process로 현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을 도외시한 Tablework에만 안주한 결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현업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젖어 각종 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간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래플즈시티 등 수많은 건물들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공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술부서와 현장 사이의 상호간 신뢰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21C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기술을 구축해야 하겠습니까. 건설은 이루 쉰 수 없는 공정, 공중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복합기술입니다. 이 모든 분야를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경제적이겠습니까? 따라서, 보유 및 비보유 기술로, 그리고 요소기술 및 응용기술로 기술을 구분한 후, 우리가 지향해야



**최상열**

토목사업본부 및 기술개발본부장



할 기술분야를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성이 우수한 분야를 특화시켜 건설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호텔, 병원, 진단, 환경 및 IBS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기술력으로 수익사업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는 다시 기술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불황의 시대입니다. 반면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불황의 시대를 초래했고, 도약을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도 됩니다. 제대로 된 우리 기술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남의 기술만 빌려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우리는 지금 불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역경도 우리는 굳굳하게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기필코 일어서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선진 기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현업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나마 기술개발에 대한 터전이 마련된 것은 묵묵히 자기분야에서 노력하여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우리 다같이 꺼져있던 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시대의 개막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SS

이제는 남의 기술만 빌려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에 우리는 지금 불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역경도 우리는 굳굳하게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선진 기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